

규모화된 시설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에 주력

– 채란업 과잉생산으로 어려움 겪어 –

□ 취재/김동진 기자

1. 미국의 양계산업

본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아틀란타 양계박람회 참관 및 미국 양계산업 시찰의 기회를 가졌다.

21명으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대부분 양계 분야에서 2세 경영인들이 대거 참석, 국내 양계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전반적인 양계산업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였지만 명실공히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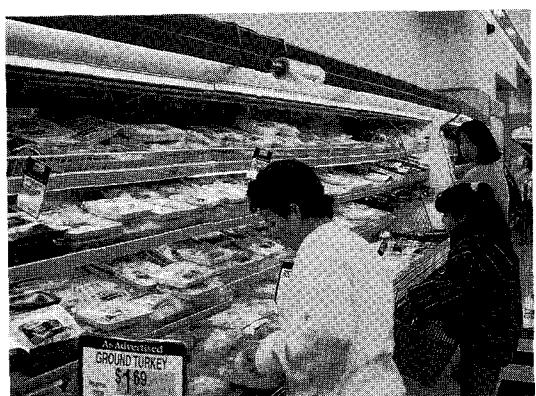
세계적인 행사로 치뤄진 아틀란타 양계박람회 참관과 조지아주에 있는 양계장, GP센타 방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계산물 시세 등을 살펴봄으로써 ‘빙산의 일각’이나마 미국양계산업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미국의 산란종계는 260만~280만수, 육용종계는 550만수, 산란계는 2억7천만수, 육계는 6억2천만수 정도가 사육되어지고 있으며 산란계의 경우 국내처럼 과잉생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란 생산비는 특란기준 38~45센트/12개 즉,



△ 미국양계산업 시찰단



△ 미국의 닭고기 판매코너



△ 대부분 12개들이 팩으로 판매되어지는 계란은 아틀란타 지역의 경우 개당 7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개당 약 38원~45원 정도인데 비해 조지아주내에 있는 농장의 경우 출하가격이 개당 20원까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장 출하가격과는 무관하게 슈퍼마켓 등 시장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지역과 계란 종류(영양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보통 시장에서 개당 7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특수란의 경우 300원 정도까지 판매되는 것도 있었다.

계란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오와이오주, 인디애나주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박람회가 열린 아틀란타의 경우 특란의 경우 개당 69~71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시찰 도중 육계업을 접할 기회는 적었으나 조지아주 지역 농장을 방문하는 중 세 계제일의 식품회사인 '타이슨'사의 유통차량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 말로만 듣던 타이슨사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미국 타이슨사의 닭고기 유통 점유율은 24.2%로 주간 28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계란 소비량은 1년에 1인당 255개, 닭고기 소비량은 45kg(칠면조 등 가금육 포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란의 경우 식란소비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공용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 1995년에 236개를 소비하던 것이 단 4년만에 20여개 정도의 소비를 늘릴 수 있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계란의 포장단위는 12개들이 팩으로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18개, 20개로 포장된 계란도 흔히 볼 수 있었다.

미국 슈퍼마켓에서 갈색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미국의 갈색란 생산 비율은 5%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 시중 판매가격은 갈색란이 백색란보다 10~20원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었는데, 조지아주 지역의 GP센타에서 알아본 백색란 도매 가격은 개당 68원, 갈색란은 75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미국에서 조사한 육계가격을 보면 부위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정제된 가슴살이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표1 참조).



△ 미국 닭고기 유통의 25% 물량을 처리하는 타이슨의 차량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표1. 미국의 닭고기 현지 조사가격

부위	가격	
	조지아주	캘리포니아
닭날개(Wing)	588원/kg	912원/kg
가슴살(Breast)	1,452원/kg	3,078원/kg
닭다리(Leg)	480원/kg	750원/kg
넙적다리살(Thighs)	696원/kg	1,074원/kg
닭똥집(Gizzard)	426원/kg	858원/kg
통닭(Whole chickens)	480원/kg	750원/kg
닭간(Liver)	426원/kg	-
닭발(Feet)	912원/kg	-

- * 파운드(LB)당 달러가격을 원화로 환산한 가격임
- * 조지아주 가격 : 한인슈퍼마켓, 캘리포니아주 가격 : 미국슈퍼마켓

닭고기 포장단위는 두 지역 모두 파운드 단위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조지아주 지역에서는 아틀란타 한인 슈퍼마켓에서 조사한 가격이며 캘리포니아주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미국백화점에서 조사한 것으로 서부지역이 동부 지역 보다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농장 및 G.P센타 방문



△ 조지아주내에 있는 L&R농장 전경, 85만수 규모를 자랑 하지만 미국내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서 1시간 30분정도 멀어진 팬디그래스지역의 L&R농장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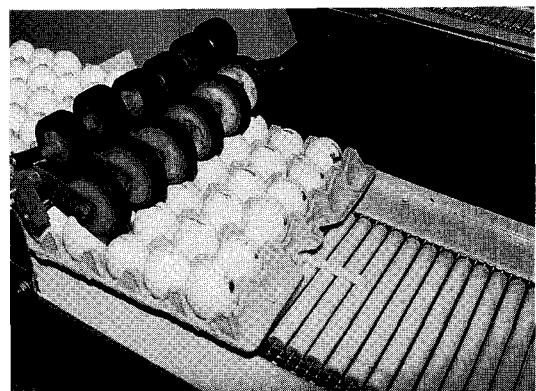
초타임시스템으로 이루어진 85만수 규모의 산란농장에서 1일 약 65만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었으며 콘베어 벨트로 연결된 인라인시스템을 따라 이동한 계란은 선별기를 통해 포장, 운송되어 냉장실까지 벨트를 통해 이동되도록 설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시스템은 1시간에 75,0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파란율은 2%에 그친다고 한다.

이 지역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계분의 경우 주변 농장에 살포를 해도 큰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단 노계의 경우 1년에 350~450만원을 주고 처리할 정도로 노계가격은 시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추구입은 산란전인 16~20주 사이에 농장과 떨어져 있는 증추농장에서 구입하여 입추를 시키고 있는데, 농장에는 잉크젯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그 농장만의 상표와 날짜를 찍어 콜드체인시스템을 이용, 유통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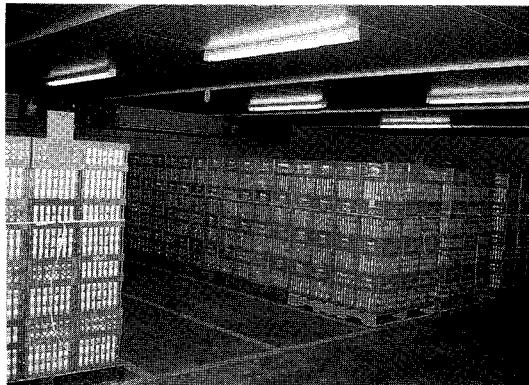
이 농장에서 특이했던 것은 25년전 지어졌다 는 재래식 A형 케이지에서 사육되어지는 계군



△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생산일자, 농장명 등이 찍히고 있다.



△ Country charm G.P센타 전경. 사진의 유통차량은 한 번에 32만개를 운송할 수 있는 적재량을 가지고 있다.



△ G.P센타내 냉장창고, 수출을 기다리고 있다.

도 같은 콘베어 벨트에 연결되어 계란이 수거되고 있었는데 농장을 없애거나 타 시설을 건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농장으로부터 버스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게인에스빌 지역에 위치한 Country Charm Egg Distributors사는 GP센타로 5개 농장으로부터 계약사육하여 계란을 이송한 후 이곳에서 선별 처리하여 시중 또는 독일 등 외국에 수출하고 있었다.

이곳도 1일 80여만개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냉장창고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모든 유통계란은 대형 컨테이너를 이용해 운반되는데 작은 차는 한번에 16만개, 큰차는 32만개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농장에서 부터 유통전반적인 과정에 이르기 까지 6~7°C(45°F)를 항상유지한다고 관계자는 언급했으며 당시 농장 판매가격은 개당 21원, 생산비는 40원, 도매가는 75~68원, 소매가는 89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3. 맷음말

이번 시찰을 통해 미국의 양계산업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단, 이쉬운 것은 방문 일정중 도계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방문이 취소되어 육계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의 양계산업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규모나 유통분야에서 국내 양계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직적이면서도 방대함을 느꼈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GP시설을 통해 등급별로 상품화되고 이 계란들은 냉장시설에 보관되어 cold시스템을 통한 신선한 계란을 대형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하고 있었다.

또한, 박람회장에서 들른 미국계란협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미국지역은 계란협회 등을 통해 계란소비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금년 4월에 개최되는 중국 VTV쇼를 박람회장에 부스를 마련하여 활발히 PR을 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중국의 가금산업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양계**